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2주차]	모임장소	구글미트
팀명	수세미와 퐁퐁	참여 학생	모세미, 박소현, 신지은, 오재원
진도	도서명: 레버리지 :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진도페이지: p.68 ~ p.139

토론 내용
<2주차 내용 요약> 시간을 낭비하는 낮은 가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하고, 높은 가치의 일은 꾸준히 하면서 성과를 늘려나가면 복리효과로 인해 가장 적게 일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책을 읽으며, 성공한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소득 창출 가치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오는 일들은 모두 레버리지 해야 한다. 감정 관리를 통해 삶을 관리하고 삶을 관리함으로써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멘토가 있나요? 있다면 누구이고,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이 책의 저자는 파트너십과 멘토의 중요성을 빌게이츠와 워렌버핏의 사례를 이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멘토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았다. 모세미: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 고등학생 때 수능 탐구 과목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정말 소수였는데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기에 나의 멘토로 삼았다. 박소현: 사촌언니와 이모,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내 같은 과 선배 사촌언니는 고등학생 때 수학 과외를 해주면서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봐주었다. 언니에게 과외를 받은 덕분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살면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사촌언니이다. 자신이 해야할 것을 알고, 모두 해나간다. 교우관계도 좋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것이 보기에 잘난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느꼈고, 멘토로 삼게 되었다. 이모는 가족끼리 만날 때를 제외하고 뵐 때마다 상담을 해주신다. 이모는 학교 선생님이신지라 아는 것도 정말 많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계발을 해나가시는 분이라 조언을 잘 해주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최고의 어른인 것 같아 멘토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내 같은 과 선배는 그 동아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본인과 같은 과인 사람이 그 선배 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그 선배가 학교 생활에 있어 본인을 굉장히 잘 챙겨주었다. 학교 프로그램엔 어떤 것에 참여하면 좋은지 알려주고, 어떤 과목은 튜터링도 해주면서 학점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고민이 있으면 잘 들어주기도 했다. 사촌언니 때 언급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멘토로 삼았다.

신지은: 교회 언니 오빠들, (레버리지를 추천해 준)유튜버, 가족, 여러 예술가들

교회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면서 살면서 가져야 할 태도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해 준 유튜버의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이 유튜버를 통해 생활패턴과 삶의 가치 등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 오빠와는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이 부딪히기도, 일치하기도 하며 많이 배운다. 마지막으로 여러 예쑬가들의 가사나 글, 미술작품 등에서 다양한 예술적 시각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오재원: 미술 학원 선생님들

아무래도 미술 입시를 할 때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고,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평가가 있는데, 시간표에 따라가지 말고 시간을 자기 자신이 이끌어야 한다고 해주셨다. 현재도 전공 공부를 하며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답변을 잘 해주신다. 그리고 그림 이외에도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서 멘토로 삼았다.

<감정 관리를 잘 하는 편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정 관리 파트에서 감정 관리를 정복할 수 있어야 삶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스스로가 감정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 대화를 해보았다.

모세미: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예민해서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런데 이 감정 기복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주변인에게 표현하려 한다. 본인은 이 감정을 스스로 잘 다독이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감정 관리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박소현: 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라서 책에서 나온 압도감과 무기력, 우울감 같은 감정이 본인을 휩쓸면 해야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나아가 삶의 관리까지 잘 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리를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감정관리를 잘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지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민할 땐 예민하고, 기복이 심할 땐 심하지만 많이 심한 편은 아니다. 가끔은 아닐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감정을 충분히 누리기도, 제어하기도 하면서 내 자신이 편안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오재원: 원래는 잘 하지 못했었는데 요즘 비교적 잘 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울한 감정이나 공허한 감정 때문에 괴로워했었는데, 요새는 전혀 괴롭지 않다.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넘겨버려서 감정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한다.

<자신의 에너지 사이클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간 관리가 곧 삶의 관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 사이클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생각한 것을 토대로 본인에게 최적화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의 에너지 사이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세미: 생산적인 시간) 오후 11시 ~ 새벽 2시

효과적인 카페인 양) 아메리카노 투샷 한 잔 (최근엔 몸 상태 때문에 잘 마시지 못한다.)

창의적인 시간) 새벽시간

지치고 피곤한 시간) 점심 후 (식곤증 때문이다.)

생산적인 장소) 관리자가 있는 곳

식사 시간) 오후 2시, 오후 7시

최고의 알람시계) 봉구

박소현: 지치고 피곤한 시간) 오후 5시 ~ 오후 9시

가장 창의적인 시간) 오후 10시 이후

취침에 가장 좋은 시간) 오전 12시 반

가장 생산적인 장소) 교실, 강의실, 상상파크, 카페 같이 공부나 일을 할 수 있게 판이 깔려져 있는 곳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 : 오전 9시 ~ 오전 11시 반, 오후 1시 ~ 오후 5시 (식곤증이 언제 오는지에 따라 다르다.)

식사하기에 좋은 시간 : 오전 9시, 오후 12시 반 ~ 오후 1시, 오후 6~7시 (공부가 잘 되는 시간과 아침 먹기 좋은 시간이 겹쳐 애매할 때가 많다.)

신지은: 생산적인 수면시간) 12시-8시 (8시간 수면) 그러나 요즘 2-3시경에 잠든다.

생산적인 장소) 카페나 스터디카페 등 트이고 적당히 조용한 곳

창의적인 시간) 오후11-새벽2시

지치고 피곤한 시간) 피곤한 날은 저녁 6~7시쯤 밥을 먹고 나면 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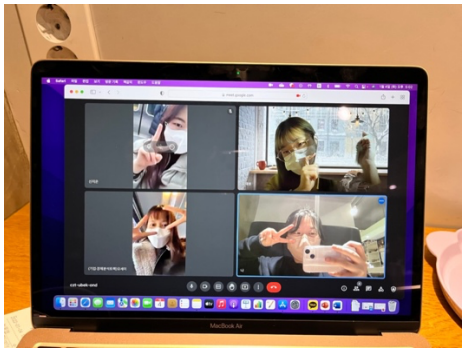
생산적인 시간) 오후 1시~5시, 8시~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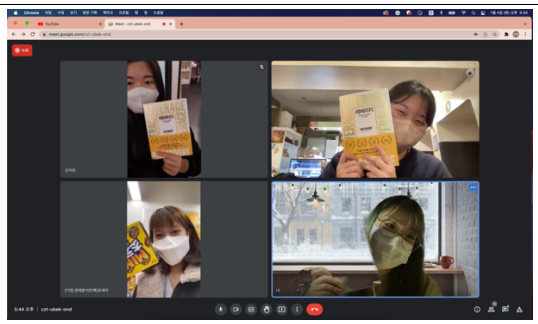
오재원: 효과적인 카페인 양) 하루에 커피 1잔 이상

가장 졸린 시간) 식후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오후 4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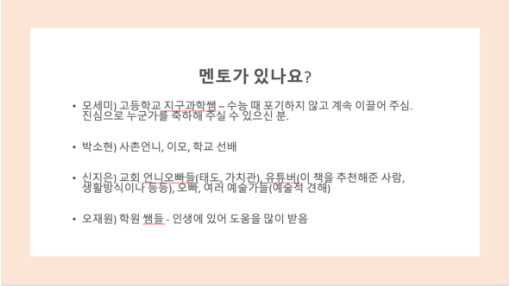
집중력 유지가 가능한 최대 시간) 90분

인증 사진	 신지은 오재원 / 모세미 박소현



신지은 박소현 / 모세미 오재원

<내용 요약>



<토의>